

“年 25조...통합특별시 금고 잡아라”

## 은행권 본격 유치전

市·道, 통합특별시금고 운영 방침 확정  
내달 光銀·농협 대상제한경쟁수계약  
1·2금고 결정 이후 6개월만 한시 운영  
하반기 숲은행 대상 차기 시금고 선정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연 2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통합특별시 금고 운영권을 둘러싼 금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전남도는 올해 하반기 중 차기 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그 전까지는 기존 시·도 금고 운영사를 대상으로 제한 경쟁 수의계약을 통해 연말까지 1·2금고를 한시적으로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16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와 광주은행, NH농협은행은 최근 실무 협의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금고 운영 방안을 논의했으나 1·2금고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시·도는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통합금고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광주시는 1금고 광주은행, 2금고 농협 체제로 약정 기간은 2028년 말까지다. 전남도는 1금고 농협, 2금고 광주은행 체제로 약정 기간은 2026년 12월 말까지다. 1금고가 일반회계와 주요 자금, 2금고가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하는 구조다.

당초 시·도는 기존 금고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금고를 별도 운영하다 내년부터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전산시스템 등 물리적 여건을 비롯해 현행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통합 시점에 맞춰 금고를 일원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도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현재 시·도 금고 운영권을 갖고 있는 광주은행과 농

협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 수의계약을 통해 올해 말까지 통합 금고를 선정, 운영키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1·2금고 운영 주체와 운영 예산 규모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두 은행 모두 통합특별시 첫 대표 금고라는 상징성과 일반회계를 담당할 1금고를 희망하면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합의에 의한 약정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와 달리 운영을 나눌 수 없어 한 곳에서 전담해야 한다.

결국 시·도는 평가를 통해 하반기 금고 운영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해 5월 안에 평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도는 17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통합 금고 운영사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 기준과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설명회 일정 등 전반적인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대내외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금고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등 기존 금고 운영 조례에 규정된 항목을 바탕으로 마련한다.

이후 두 은행을 대상으로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아 광주시·전남도가 구성된 금고지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도는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기관 제한이 없는 일반 경쟁 방식으로 차기 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절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광주시·전남도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 전 금고 통합을 위해서는 5월 안에 평가를 마무리하고 운영사를 선정해야 하는 만큼 조속히 심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오는 20일께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내년부터 통합특별시 자금을 관리할 차기 금고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은진·양시원 기자



유가족 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이 끝난 뒤 유가족들과 인사하며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 李대통령 “무거운 책임 통감... 잊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2·6면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또 4월16일이 찾아왔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말로 담아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며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 속에도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해 온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오랜 세월 매일 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을지 헤아릴 수 없다”고 위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 똑똑히 목도했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현직 대통령 세월호 기억식 첫 참석

“국민 생명·안전이 국가 존재 이유”

다.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도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그날의 과오와 무거운 교훈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며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든 국민을 지켜내는 나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

를 만들겠다.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며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슬픔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며 “그리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여전히 아프고 힘든 임무를 알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다짐하는 한 (희생자) 304명 한분 한분의 이름과 그들이 이루지 못한 304개의 꿈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추도사를 마쳤다.

유가족 측은 이날 현직 대통령의 첫 참석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남은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 민주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5명 확정

6·3 지방선거 D-47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5명이 추가로 확정됐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6일 순천시·구례군·담양군·영광군·장흥군 등 5곳의 기초단체장 결선 투표 결과와 완도군·무안군 등 2곳의 본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2·3·4·9면

순천시 후보 경선에서는 손훈모 후보가 오

순천시 손훈모·구례군 장길선

담양군 박종원·영광군 장세일

장흥군 김성...완도·무안 결선

하근 후보를 꺾고 무소속인 노관규 현 시장과 맞붙게 됐다.

구례군수 경선에서는 구례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장길선 후보가 3선에 도전한 김순호 현 군



수에 승리해 본선에 진출했다. 전남도의원들 간 맞대결이 펼쳐진 담양군수 경선의 경우 박종원 후보가 이규현 후보를 꺾었다. 영광군수 경선에서는 현역인 장세일 후보가 김혜영 후보에 승리했다. 장흥군수 경선 역시 현역인 김성 후보가 과태수 후보를 누르고 최종 후

보에 이름을 올렸다. 완도군수 (3인)와 무안군수 (4인) 본경선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없어 다득

표 상위 2명이 결선을 치르게 됐다. 완도군수 결선에는 우흥섭 후보와 지역배 후보가 진출했고, 무안군수의 경우 현역인 김산 후보와 도의원인 나광국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국민참여경선 (권리당원 50%+일반 여론조사 50%) 방식의 결선투표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

후보 중 17명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5명 외에 목포시장 강성휘·나주시시장 윤병태·광양시장 정인화·영암군수 우승희·강진군수 차영수·진도군수 이재자·해남군수 명현관·신안군수 박우람·함평군수 이남오·보성군수 김철우·곡성군수 조상래·고흥군수 공영민 후보 등이다. /김재정 기자

Today	
“민주당 ‘깜깜이 경선’ 개선해야”	3면
동인선생 역경 강좌·천희동인(중)	15면
네일 “믿음 주는 투구로 긴이닝 책임”	16면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트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04** 교차로 중심지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차량,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노출 효과  
▶ 백운광장 일대 교차로 통행 차량 약100,000대, 푸른길 브릿지 이용자 수 약2,000~3,000명으로 차량 승차 인원 및 보행자 등 하루 수십만명 노출 효과 추정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동선로1 (동선동, 남구청)

**광주매일신문** ☎ 광고문의 062) 650-2070